

# 신문론 사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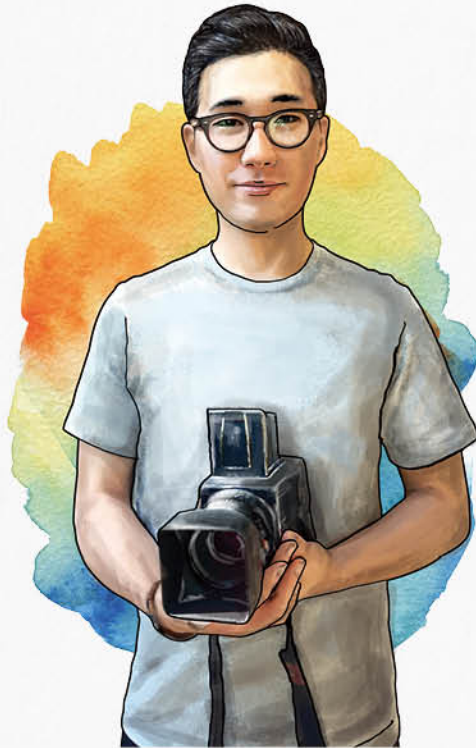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06

2016 + June  
Vol. 192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감과 소통의 힘.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행복의 다리가  
되어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사진 찍는 사진작가 김승우

## 참전 어르신들의 힘든 시간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싶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주름과 눈빛을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사진작가 김승우 씨. 그는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찍어 그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전 어르신들의 힘든 시간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그는 사진을 통해 전쟁의 잔인한 기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마음까지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승우 작가님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http://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http://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http://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http://facebook.com/pacnews)

# Contents

2016 June Vol.192

## 04 인터뷰

채경옥 / 한국어기자협회 회장

## 06 미디어트렌드

데이터 저널리즘

## 07 언론중재법 NOW

인격권에 기반한 침해배제청구권의 신속한 법제화는 시대적 요청

## 08 문화토픽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 09 세상읽기

누가 정치를 해야 하나

## 10 인증노트

제보영상 보도시 유의할 점

## 11 언론법 이모저모

혐오 표현

## 12 여행수첩

인도 콜카타 여행

## 14 위원회 NEWS

## 15 조정중재 사례 / 『4년째 사랑』 100자평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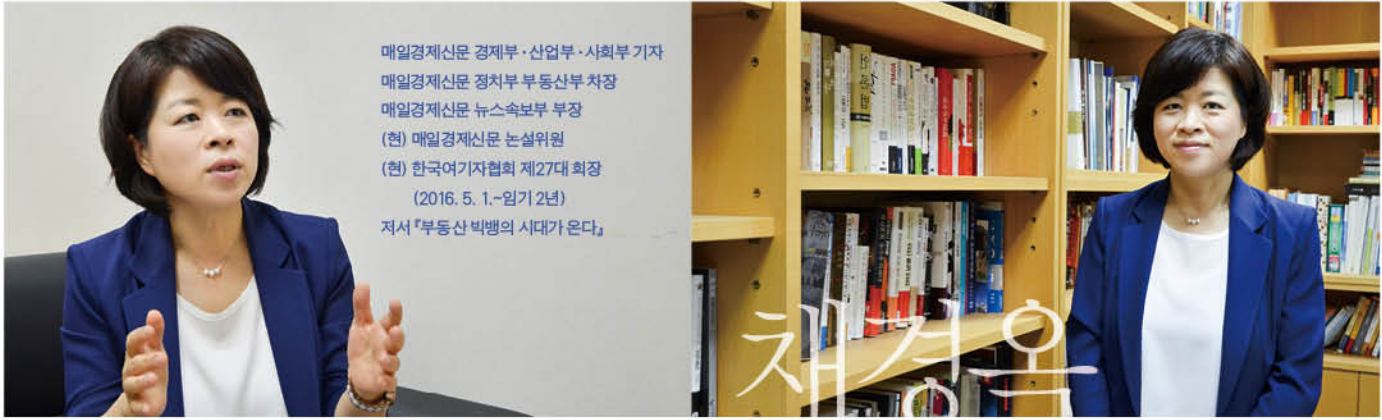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여기자, 남기자가 있지만 취재영역과 취재기사에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길뿐이라는 “여기자”, 기사는 엄정하게 쓰되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이슈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자”, 20~30대 젊은 여기자 층의 급성장이 협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향후 역점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힌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을 만났다.

**Q. 제27대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여기자협회에 대해 알려주시고 향후 회장님의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A.** 한국여기자협회는 중앙 언론사 여기자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현직 여기자 모임입니다. 여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낯설던 1961년 4월 여기자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현재 중앙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경제지, 스포츠지, 영자지 등 25개 회원사 1,100여 명의 여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각 사에서 국장, 부장, 논설위원으로 활약하는 중견 여기자들도 크게 늘었고 향후 국내 언론에서 여기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글을 읽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각 언론사 내에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자들은 육아까지 병행하다 보면 재교육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는데 협회가 제공하는 국내외 연수는 회원사 여기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력 개발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협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특파원으로 선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현 직장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자 이후 인생 이모작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가 되려는 대학생들을 위해 20년 넘게 개최하고 있는 무료 워크숍인 ‘기자가 되는 길’은 해마다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비기자 지망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매년 리더십 세미나 등을 통해 여기자들이 고위 관리직에

걸맞은 준비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른 전문 직종 여성들과의 교류강화,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금융계 등에 여성 임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협회는 이들 여성 리더계층과 여성 언론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자 자녀들은 부모들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장 꺼리는 원생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기자, 여기자 할 것 없이 기자생활 하면서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사별 직장 보육시설 해법을 꾸준히 찾아보겠습니다.

**Q. 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일과 가정생활을 잘 양립해오셨는데, 직장인 여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여성 비중이 30% 이상은 돼야 합니다. 30%는 어떤 조직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인사적 배려가 시작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조직은 성별, 인종, 국적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발히 권장한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가부장적 여성억압 문화가 온존해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부진한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경제 위기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부정부패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곧 국

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국가, 사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 여성들이 아예 출산을 꺼리거나(저출산), 남성 혼자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거나(노령 빈곤),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진출이 막힌 전업주부들이 자녀교육에 과잉 몰입하는(사교육) 등의 각종 사회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Q. 기자는 어떤 직업이고 글쓰기 이외에도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A.**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우선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만나서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주고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것은 기자가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해놔야 심도 있는 질문, 날카로운 질문,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기자는 질문대상을 고를 때도 국민 전체를 대리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를 찾아서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공정함, 엄정함 그리고 균형 감각이야말로 기자가 기자인 이상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가치들입니다.

**Q.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요?**

**A.** 여기자들은 여성인 동시에 엄마이고, 직장여성이기도 하고, 아내이자 며느리·딸이기도 합니다.(미혼 여기자들도 많습시다만) 각종 사회 사건을 볼 때 남성 기자들보다 훨씬 감정적 공감의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 피해자가 유독 많은 가슴기 살균제 사망 사건, 온 국민의 건강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문제, 공교육 붕괴 및 과도한 사교육 문제, 원자력 발전 안전 문제, 직장 내 양성평등 문제 등도 여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자들의 활동 영역이 생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분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남녀 구분 없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이슈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관심, 치열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자, 남기자가 있지만 취재영역과 취재기사에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Q. 26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해 오셨는데 언론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닳고 싶은 언론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선배 언론인 중 한 분이 “백 번의 특종보다 한 번의 오보를 더 뼈아프게

여기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기자라면 항상 특종을 욕심내기 마련이지만 오보를 경계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엄정하게 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강점은 언론인의 기본인 ‘글발’과 ‘호기심’ 그리고 ‘친화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원만함과 친화력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언론인 상은 최근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나왔던 마틴 배런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당시 보스턴 글로브 편집국장) 같은 분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 가는 통찰력, 팩트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꼼꼼하고 끈질기게 확인하는 지구력,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언론인으로서의 용기, 그리고 후배들에게 먼저 공을 돌리는 겸양을 갖춘 언론인들이 많아질수록 언론의 위상과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최근 역설적이게도 여성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160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뒤 “여성의 힘이 클수록 국가의 경제적 성공도도 높다”고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인구감소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길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역사적 필연성인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필연성에 저항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언론사에서 구조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게이트키퍼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여기자들의 양적, 질적 팽창을 통해 자연적으로 파워슈프트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시각 교정이 이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A.** 사회가 다층화되고 언론사가 다양해지고 사회구성원들의 언론관이 변화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오보나 편파보도를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다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금력, 권력,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사회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조정·중재’라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 ‘언론자유 수호’의 보루가 되어주시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더 많은 여성 언론인들이 중재위원으로 중용되길 바랍니다.

## 데이터 저널리즘:

# 자료 더미에서 원석을 캐 빛나는 보석으로 가공

전통적으로 기자는 주로 글과 말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사진기자는 사진 이미지, 방송기자라면 영상 감각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두 축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 대부분은 사람을 취재해 나온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자들의 뉴스제작 문법과 관행을 흔드는 수상한 개념이 출현했다.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이 그것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나 그래프 같은 시각화 방식과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뉴스에 접근하고 취재해 가공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뉴스메이커, 즉 사람들을 직접 취재하는 대신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우선하여 다룬다. 이를 가리켜 "데이터를 인터뷰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당연히 뉴스제작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데이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의 보도 방식에서 통계와 데이터가 보조적인 위치에서 머물렀다면,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에서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여가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한두 건의 피해 사례를 먼저 취재한 다음 경찰청 집계 수치를 섞어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함께 편집하는 게 전형적인 리포트 제작법일 것이다. 반면에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데이터부터 따져봤다. 교통안전공단의 자전거 사고 다발 지점 데이터를 웹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하면, 지난 3년 동안 2번 이상 사고가 난 지점 8,500곳을 추릴 수 있었다. 이 지점을 지도로 시각화한 뒤, 전국의 교차로 위치와 중첩해보니, 60%를 넘는 자전거 사고가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만나는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년 6월과 9월 중순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며, 평일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몰렸다.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추이를 분석해보니, 시내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결과는 별도의 생생한 현장 취재물과 함께 가상 스튜디오 리포트로 방송됐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해 발표한다. 휠체어를 타고 입구에 들어가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점자블록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 다양한 사항을 점검한다. 2013년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62.3%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최근 자료로 분석해보니 실상은 달랐다. 서울시 의뢰로 지체장애인 서울지원센터가 서울 소재 1,800여 개 공공건물의 접근성을 조사한 데이터에서는 전체 시설의 68%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열쇠는 자료보다는 분석 방법의 차이에 있었다. 정부 보고서가 각 조사 항목의 점수를 평균을 내



어 집계했다면, 취재진은 중요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문제가 있는 건물을 모두 골라냈다. 현관 입구가 좁건, 경사로가 없건,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보도자료를 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따져 보면 보다 차별화된 기사를 쓸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의 취재 방식보다 사회 이슈에 더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마치 하늘에서 큰 그림을 조망한 뒤, 개별 지점으로 들어가 확대경을 들이대듯 정밀하게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랙티브 차트와 지도를 통해서 시청자나 독자가 직접 자세한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데이터저널리즘팀을 괴롭히는 현실적인 제약과 오해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언론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데이터 저널리즘을 정보산업계의 빅데이터 분석과 동일시하는 것도 흔한 착각이다. 실제로 필자가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엄밀한 의미의 빅데이터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스몰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데이터베이스이건, 문자를 담은 비정형 데이터이건,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 더미에서 원석을 캐내고, 그것을 다시 빛나는 보석으로 가공해 공익적인 뉴스로 전달하는 것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영역이다. 아직은 극소수 언론인이 외로운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갈지 언론계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의 신속한 법제화는 시대적 요청

전자미디어를 통한 뉴스서비스 시대에는 과거의 인격권 침해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침해구제에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적합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발생해 종결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계속해서 게시됨으로써 피해가 무제한 양산되고 있는 지금은 방해원인의 제거, 즉 문제가 된 기사의 삭제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만 완벽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컷뉴스 사이트에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국가안보와 관련된 인기 어려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당시 경인지역 민방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경인방송TV 컨소시엄의 한 축이었던 영안모자 대표이사 A 회장이 미국 정부의 정보원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A 회장이 특정인을 통해 국내 정세 및 북한 동향을 취합한 후 이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모종의 행위 배후에는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보도내용은 노컷뉴스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굴지의 포털들을 통해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사건 당사자였던 영안모자 A 회장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문제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언론법제사에 새로운 쟁점을 던져주었다. 이에 대응해 노컷뉴스 측은 논란이 된 기사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는 전통적 면책 사유를 통해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국 공방은 대법원(2013. 3. 28. 2010다60950판결)에 가서야 막을 내릴 수 있었다.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침해)배제청구권이라는 생소한 권리에 내포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기사삭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기사삭제청구권은 해당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의 인격권 보호제도가 사이버 미디어 시대의 보도방식과 보도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보도방식과 관련해, 전자미디어를 통한 뉴스서비스 시대에는 과거의 인격권 침해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침해구제에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적합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발생해 종결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계속해서 게시됨으로써 피해가 무제한 양산되고 있는 지금은 방해원인의 제거, 즉 문제가 된 기사의 삭제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만 완벽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보도내용과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공격적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기여는 상당 부분 '의혹 제기' 보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기사제공자인 언론사들은 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항변을 통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확신과 신빙성 있는 조사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보도라 할지라도 나중에 상당부분 허위라고 밝혀지는 경우는 허다하며, 포털 등에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방치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과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결국,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불가능하며, 인격권에 터 잡은 방해(침해)배제청구를 통해서만 해당 기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시대에 걸맞은 인격권 보장을 위해서는 방해(침해)배제청구권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페터 해벌레(Peter Häberle)는 "개인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규범복합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반드시 제도-조직과 절차-마련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하면 언제든지 뉴스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박물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 달콤하게, 더 달콤하게 〉

벨칸토 오페라(Bel canto)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 벨칸토 오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려한 기교를 부단한 훈련을 통해 연마한 이탈리아의 발성과 성악예술을 이야기하고, 둘째, 성악가들이 이렇게 벨칸토 스타일로 노래하는 19세기 이탈리아 낭만주의 오페라 양식을 말할 때 쓰인다.

벨칸토 오페라는 주로 세 사람의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에 의해 확립되고 발전했다.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가 그들이다. 이들 중 선배 작곡가인 로시니가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했다면 비슷한 연배였던 도니체티와 벨리니는 서로 경쟁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가에타노 도니체티(G. Donizetti)의 대표작으로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와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베르토 데브뢰'에 이르는 여왕 3부작 같은 역사적인 소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엄하고 비극적인 정가극(正歌劇)들이 많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도니체티가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곡해 당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수많은 정가극보다 오늘날에는 그의 희극 오페라가 훨씬 더 자주 공연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작곡가 도니체티를 말할 때면 항상 따라다니는 작품이 되었다. 사랑의 묘약이란 제목 그대로 마시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마법의 약이다.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한다.

농촌 시골의 처녀, 총각인 아디나와 네모리노가 이처럼 특별한 약을 둘러싸고 벌이는 사랑스러운 '밀당'을 그린 이 오페라는 도니체티 특유의 서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와 더불어 희극적인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 재치가 빼어난 명작이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갑작스러운 외지인의 방문으로 시

골벽적해지고 예쁘고 도도한 매력의 아디나에게 한눈에 반해 청혼을 하는 멋쟁이 군인 벨코레 하사와 그 청혼을 수락하는 그녀를 지켜보는 순박한 농부 네모리노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네모리노는 아디나를 오랜 시간 짝사랑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그를 위해 나타난 사람은 돌카마라 박사다. 돌카마라는 예전 우리 시골 장터를 누비고 다니던 사기꾼 약장수의 전형으로, '박사'라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부여했음이 틀림없는 호칭이다.



떠돌이 약장수이자 돌팔이인 돌카마라가 속사포 같은 아리아로 어리숙한 시골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장면은 이 오페라에서 가장 웃음이 많이 터지는 순간이다.

돌카마라는 순진하게 다가와 사랑의 묘약도 파냐고 묻는 네모리노에게 바로 그 약이 여기 있다며 싸구려 포도주를 비싼 값으로 덥석 안긴다. 돌팔이 의사 돌카마라의 가짜 묘약에 취한 네모리노에게 뜻하지 않았던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소와는 다르게 당당하고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네모리노의 모습을 달리 보기 시작한 아디나는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테너의 아리아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 '남몰래 흘리는 눈물(una furtiva lagrima)'이다. 이 곡의 구슬프고 애조 띤 멜로디를 들으면 비극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 같지만, 사실은 아디나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렸음을 알게 되는 네모리노의 기쁨의 아리아다. 사랑의 묘약의 약효가 확실히 발휘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카마라는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나간다. 도니체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 이야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과 익살스러운 상황설정을 덧입혀 한 편의 감미롭고 유쾌한 벨칸토 오페라로 만들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우리들에게 작곡가 도니체티가 건네는 달콤하기 그지없는 위로다.

## 누가 정치를 해야 하나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세 가지를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요소로 언급한 것은 97년 전(1919년)입니다. 당시 암울한 독일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는 학생운동 단체를 상대로 한 뮌헨 대학 연설에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해 말에 유명한 ‘소명(召命)으로서의 정치’로 발간됐습니다.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를 했거나 안 했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를 혐오하거나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20대 국회의 정치가 지난 국회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지요. 그럼에도 나라의 미래에, 개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치를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줄이고, 유한한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아니 절반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이란 것은 교과서 예나 나오는 얘기고, 아마도 정치가 최악을 피하고 차악 정도만 달성해도 평균점수는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정치를 해야 하나.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세 가지를 정치인의 가장 필요한 요소로 언급한 것은 97년 전(1919년)입니다. 당시 암울한 독일 정치에 적극 참여하려는 학생운동 단체를 상대로 한 뮌헨 대학 연설에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해 말에 유명한 ‘소명(召命)으로서의 정치’로 발간됐습니다. 권력을 다루는 정치인의 역할과 자질을 꿰뚫는 베버의 ‘통찰력’은 지금 읽어 봐도 너무나 적확합니다.

일단 정치에 뛰어들든 대부분은 열정이 있다고 해주지요. 하기가 요즘은 잘못된 열정으로 무장된 이른바 ‘생계형 정치인’이 적지 않아, 이들이 벌인 탐욕적 일탈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베버도 그저 그런 정치인이 뛰어난 정치가가 되려면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열정에 책임감이 보태져야만 한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지요. 열정만 있다면 잘못

된 신념의 근본주의에 빠지거나,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위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동기가 무조건 좋고 옳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이니 훌륭한 정치가는 역시 남에게 미칠 결과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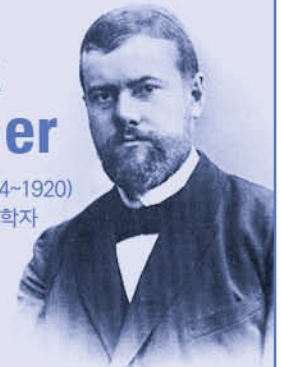
여기에 하나 더, 균형적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균형적 판단을 ‘정치가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질로,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지요. ‘바뀌 말하면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적 판단에는 원가 합리성, 냉철함, 예지력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베버는 다시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어느 정치가에게나 치명적인 죄과(罪過).’ 정치인들이 막말로 반짝 시선을 모으지 말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선거 때 잠시 몸만 낮추는 것 말고, 이런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비단 정치뿐이겠습니까. 인간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뤄나가는 것이 넓게 보면 다 ‘개인으로서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가의 역할과 자질을 꿰뚫은 베버의 통찰력은 주기적으로 투표하는 우리의 무딘 정치 감각을 날카롭게 일깨워주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회사에서나 단체에서, 사적 모임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자질들이지요.

정치를 혐오하거나 애써 무관심해도, 그 정치가 결국 나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가 후지다고, 정치인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이지만, 유권자의 선택과 목인, 투표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 수준은 유권자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들 하지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니 유권자들도 ‘소명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한 ‘소명’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더 나은 정치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 Max Weber



막스베버(1864~1920)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저명한 사회과학자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적 현상분석에 필요한 이론구축으로 현대사회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철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1904),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1905)이 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가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는 막스베버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 블랙박스에 포착된 무법자들에게도 인권은 있지 말입니다

제보영상 보도 시 유의할 점



언젠가부터 블랙박스는 차량 소유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접촉사고 발생 시 상대방 운전자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주차 중 내 차에 상처를 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야 할 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주요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이런 순간만을 선별적으로 촬영, 녹화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모습까지도 블랙박스 영상에 담기게 된다.

내가 촬영된 줄도 몰랐던 블랙박스 속 영상이 블랙박스 소유자의 제보로 보도됐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주차장에서 일어난 돌발 상황으로 당황하는 운전자와 도로 위에서 경찰에게 항의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두 운전자 모두 방송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사건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다른 사건은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차이점은 보도에서 운전자가 특정되었는지, 방송사가 운전자의 얼굴 및 차량 번호 등을 꼼꼼하게 모자이크 처리했는지, 보도의 공익성이 있는지 등이다. 즉, 시청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안전 촉구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방송에 동의한 바 없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되더라도 수인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중재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 형량을 한다.

위 사례 중 돌발 상황에 부닥친 운전자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방송되어 신원이 노출되었다. 이에 방송사도 과책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교통 지시하는 경찰에게 과격하게 항의하는 운전자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과잉행위로서 공무원의 공적 신뢰 보호를 위해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보도의 공익성이 넓게 인정됐다. 또한 해당 방송사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히 하여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의 촬영자이자 소유자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제삼자의 초상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적 권리로서 타인에 의해 포기되거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다. 더욱이 CCTV와 같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 터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 누구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당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설령 블랙박스 촬영에 대해 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의 범위가 방송 보도나 인터넷 게시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송사가 제보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영상물일지라도 방송이나 공개 범위까지 제보자의 결정에 의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및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초상권)를 가지고,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이러한 권리는 불법 행위자나 형사 피의자에게도 똑같이 보장된다.

따라서 방송사는 제보로 습득한 영상이 흥미롭고 보도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영상이 전달하는 위법한 행위 사실, 즉 사건 자체와 그 행위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익성이 상당한지, 단지 보도를 실감 나게 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따져보기를 바란다.

# STOP! 혐오 표현 SPEECH



강남역, 트럼프, 이주민. 얼핏 보면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혐오’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미움’ ‘싫음’ ‘거북함’ 등이다. 여기에 사회적·역사적 맥락이 더해져 혐오는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그 정체성을 빌미로 삼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혐오가 현재 우리 시대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읽어내는 코드가 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역 부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그 후 이어진 대규모 추모 행렬에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했던 여혐(여성혐오)의 줄임말)이 내재되어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에 썩 호감 가지 않는 인상의 미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유권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데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혐오가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땅에 온 낯선 외국인들을 뵈기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스스로에게서 순혈주의를 자랑하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깊은 타민족 혐오를 실감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싫은 것,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혐오나 혐오감 자체는 규제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내심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당장 물리적으로 혐오를 표출한다면 범죄에 해당하여 살인이나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어적 방식으로 표출된 혐오, 이른바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한 마디로 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혐오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혐오 표현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만나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09년 7월에 있었다.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인도인 교수 보노짓 후세인은 부천행 시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국인 승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듣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남성 승객은 후세인 씨에게 “시끄러워! 더러운 xx야” “이 개x x야, 냄새나. 너, 어디서 왔어?”라고 쌍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편, 혐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면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판례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2005다65494)고 판시한 바 있는데, 최근까지 법원에서 모욕으로 인정된 혐오 표현으로는 ‘듣보잡’, ‘종북’, ‘주사파’, ‘짬새’ 정도를 들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 모든 법적 책임이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모욕’이라는 개념은 다수가 속한 집단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닌, 소수자 집단 전체를 향한 혐오 표현은 모욕적 언사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은 결코 최근이 아니다. 남북분단이라는 극단적 대치 상황 속에서 이념이 다른 진영 간에 ‘종북’ ‘빨갱이’나 ‘친일’ ‘보수꼴통’이라 명명하며 서로가 서로를 혐오했다. 지역 간에도 혐오하고, 계층 간에도 혐오하다가 이제는 남녀 간에도 혐오한다.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한 유명 개그맨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웃음만 생각하다 보니 발언이 세졌고 자극적인 소재, 격한 단어를 쓰게 됐다.” 그렇다. 하나만 생각하면 쉽다. 그러나 이것저것 고려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고려요소가 아닌가.

# 여행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봉사활동

인도 콜카타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 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성녀 테레사의 무덤. 세계 자원봉사 활동의 메카인 콜카타 테레사 센터 1층에 있으며, 항상 추모자들로 붐빈다.

빅토리아 메모리얼. 콜카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식민지 시기인 1921년 빅토리아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 연착한 기차, 녹초가 된 가족

우리 가족은 세계일주 여행을 계획하면서 관광지 중심이 아니라, 현지 주민을 만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도 방문하는 일정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참여형' 여행을 구상한 것이다. 관광지 중심으로만 다닐 경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여행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거창하게 말하면, '관광'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나(자아)'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도록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부 정보의 흡입력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인도 콜카타는 이를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하지만 콜카타로 가는 여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바라나시에서 콜카타로 가는 기차의 출발 예정시간은 오후 7시 15분이었으나 기차가 들어온 것은 다음 날 새벽 3시였다. 지독한 안개와 취약한 시스템으로 8시간이나 연착한 것이다. 낡은 기차가 700km가 넘는 인도 북부 대평원을 가로질러 콜카타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40분. 21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부터 인도 여행까지 함께 참여했던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조카가 배탈이 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일정까지 꼬여 버리고 말았다. 장기 기차여행에다 거리에서 사탕수수를 직접 짜서 파는 음료를 마신 것이 탈을 일으킨 것 같았다. 우리가 갖고 간 비상약으로도 차도가 없어 결국 병원을 찾아 진찰과 처방을 받고 난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애초 토요일 오후에 콜카타에 도착해 일요일 하루 쉬며 관광지를 돌아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마더 테레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은 계획보다 이를 늦은 수요일이나 참여할 수 있었다.

## 다국적 봉사활동의 메카

콜카타는 세계 자원봉사 활동의 메카다. 평생 빈민과 어린이를 돕는 활동을 펼쳐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성녀(聖女) 칭호까지 얻은 테레사 수녀의 뜻을 잇는 봉사활동이 펼쳐지는 곳이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지만,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 구시가지의 남루한 길을 따라 테레사 센터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의 봉사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많았지만, 한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고, 일본인들도 보였다. 7시가 되자 참가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아주 간소하게 빵과 바나나, 짜이(밀크티)로 이루어진 '테레사의 아침 식사(Teresa's Breakfast)'지만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녀가 나와 간단한 기도에 이어 주요 일정과 공지 사항을 소개한 다음, 봉사활동 장소로 떠나기 위해 센터를 나섰다. 처음 온 참여자들에게는 즉석에서 장소를 배정해 주었다. 우리 가족은 어린 장애아들이 지내는 다야단(Dayadan)으로 배정되었다. 콜카타에는 7개의 자원봉사 시설이 있으며, 시설의 수요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배정해 주었다. 장소를 배정받은 다음, 다른 참여자들을 따라 버스와 오토릭샤를 갈아타고 다야단에 도착했다.

우리가 배정받은 다야단 2층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6~14세 아이 30여 명이 지내고 있었다.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이 방치된 아이들이었다. 스스로 걷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시설의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도와줘야 한다. 봉사활동은 오전에만 진행된다. 시설에 도착해 이들을 돌보거나 빨래 또는 청소를 한 다음, 잠시 쉬었다 점심 식사를 도와주는 게 주요 일이다. 그런 다음 아이들을 각자 침대에 눕혀 주면 일정이 끝난다.

대학교 2학년인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 아들, 그리고 조카는 뜻밖에 빠른 적응력과 순발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큰아들을 앞세우고 시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빨래를 돕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설의 인도인 아줌마, 외국인 봉사자들과 호흡을 맞추어 옷과 이불을 빨아 옥상에 거미줄처럼 쳐놓은 줄에 널었다. 그렇게 봉사활동 첫째 날 일정이 지나갔다.

### 아이들의 달라진 눈동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막막했던 봉사활동에도 금방 익숙해졌다. 어디로 가라거나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지만, 모두가 봉사의 한마음을 가진 테서 나오는 자율과 협력의 힘이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된다. 우리 가족도 첫날 활동을 마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오리엔테이션은 대략 20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묶어 영어로 진행되는데, 한국인 참여자들이 가장 많고 숫자도 20명을 넘어 별도로 진행되었다. 방학을 이용해 여행과 봉사를 겸해 이곳을 찾은 대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은 자원봉사가 없는 날이어서, 우리 가족은 수요일과 금, 토요일까지 3일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봉사활동 둘째 날인 금요일에는 빨래가 엄청 많아 우리 가족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 대역섯 명이 모두 빨래에 매달려야 했다. 목요일에 자원봉사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빨래가 쌓여 있었다. 빨래를 마치고는 옥상 바닥까지 깨끗하게 물청소를 했다. 다야단의 인도인 아줌마가 아이들을 “커즌! 커즌!” 하고 부르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어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다.

휴식 시간에 짜이를 한 잔씩 마시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 점심 식사 도와주기가 시작되었다. 봉사자들이 각각 1명씩 맡아서 식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미 첫날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배식 준비가 되면 한

명씩 맡아 식사를 도와주었다.

일부 아이들은 식사를 아주 잘했지만, 일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다. 우리 아이들도 각자 한 명씩 맡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맡은 아이는 계속 잠만 자려 했다. 둘째는 죽 같은 음식을 뜬 수저를 입가에 가져가서는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정성을 다했다. 평소 덜렁거리던 모습과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그는 아이의 식사를 도와주는 데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첫째 아들과 조카도 각자 맡은 아이에 집중했다. 그들의 눈빛에 진지함과 간절함이 넘쳤다. 컴퓨터 게임 등 흥밋거리에 관심이 있던 그들에게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다. 입 주변의 음식을 닦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아이들을 안아 각자의 침대에 누일 때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이런 활동은 셋째 날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후에는 유적지, 박물관 등을 신나게 돌아다녔다. 대영제국의 영화를 간직한 빅토리아 메모리얼 등 기념비적 건축물과 낙후한 거리와 건물들이 혼재해 있었다. 동방의 시성(詩聖) 타고르 기념관, 살아 움직이는 식물을 보는 듯한 동양 최대의 보리수인 그레이트 반얀트리, 항구인 다이아몬드 하버, 신도시인 솔트레이크까지 돌아보았다. 봉사의 뿌듯함 때문인지, 관광지를 돌아보는 아이들의 눈동자도 살아났다. 조카도 배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되었다.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은 일종의 결핍과 불만족의 느낌을 수반하게 된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결핍이나 불만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반면 봉사는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나누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봉사의 출발이 충족이요 만족인 셈이다. 이게 봉사의 매력이요, 비밀코드였다. 아주 짧은 ‘맛보기’ 봉사활동이었지만, 그 어떤 유명한 유적보다 깊은 의미를 남긴 여정이였다.**



콜카타 구시가지. 수리한 흔적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인력거가 주요 교통 및 물자 운송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콜카타 뉴 마켓의 인파. 여행자들의 거리인 중심부 '서더 스트리트' 인근에 있으며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 COMMISSIONERS 위원동정

### ·2016년도 중재위원 연수 개최



위원회는 5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이틀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2016년도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서울 8개 중재부와 지역 10개 중재부의 중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중재위원들은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심리진행 관행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배영곤 위원(서울제6중재부, 변호사)은 「법원판결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조정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하면서 구체적인 언론조정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사실과 쟁점의 정확한 파악, 다양한 조정 방법 시도, 합리적인 배상액산정, 중재제도의 활성화, 사건 유형별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 김명중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조정심리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심리운영 절차 개선, 중재위원의 전문성·공정성,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제안했고, 이어 유세경 위원(서울제3중재부), 성기준 위원(서울제5중재부), 오광권 위원(경기중재부), 이영동 위원(경남중재부)이 패널로 참가하여 토론을 벌였으며, 이태수 위원(서울제4중재부 중재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위촉

양원홍 위원(제주중재부,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16년 5월 31일(화)부터 2년이다.

## NEWS 위원회 소식



### 해외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위원회는 2016년 5월 22일(일)부터 5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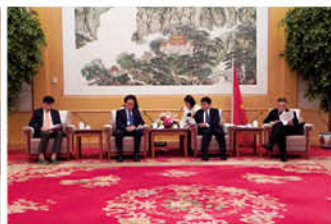
(토)까지 중국의 베이징, 시안을 방문해 현지 언론

관련 현황을 접하고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렸

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권우동 사무총장의 중국 시찰에는 심영진 운영본부장, 김주용 연구팀장, 한혜연 기획팀 직원이 수행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5월 24일(화) 베이징대학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인터넷포털 집중 현상과 모바일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뉴스시장 동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시찰단은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TV, 인터넷 출판, 모바일 간행물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중국의 행정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을 방문하여 우상즈(吳尚之) 부국장을 면담하고 중국의 언론 및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산시성 최대 종합 미디어 그룹인 '산시방송국(陝西廣播電視台)'을 방문해 왕푸바오(王福豹) 사장을 접견하여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설명하고 해당 언론사가 마련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간담을 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마쳐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위원장 한위수)는 지난 4

월 13일(수)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6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기사 심의 결과, 자체심의를 통해 58건(국회의원선거 55건, 재·보궐선거 3건)의 제재를 의결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2건을 처리했다.



###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위원장은 5월 29일(월)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주중재부 중재위원 5인과 제주지역 6개 일간지 대표 및 방송 3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인터넷상에 복제 전파된 잘못된 언론보도나 위법한 기사 댓글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통권 19호)가 6월 1일(수)

발간됐다. 여름호에는 '행동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설득 III

(점근-회피동기에 기반한 소통과 조정)', '크리튼과 소크라

테스의 마지막 대화 속 설득과 변론',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반한 협상전략과 설득'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명확한 취재 거부 의사에도  
무단으로 촬영해 방송,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성립

01

A 방송사는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윗집의 생활소음에 대해 보복소음을 일으켜 아파트 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취재나 방송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이 층간소음 주제와 관련 없는 개인사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 방송사는 조정대상 보도는 층간소음 갈등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보도였고,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를 통해 인권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취재를 진행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했다.

중재부는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지적한 해당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동의를 철회했고 이혼 경력, 진료 내역 등의 사생활을 보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에서 해당 방송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통상 한계를 넘어선 모욕적인 표현의  
오보,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직권조정결정

02

B 신문사는 모 구청 홍보팀장이 통·반장들에게 특정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려고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였고 신문사 발행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언론사를 탄압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직책 및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구청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하였다.

한편 B 신문사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한 주체로 신청인이 아닌 통장협의회를 지칭한 것이며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명예훼손의 표현행위는 표현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피해자의 주관적 이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고 이해가 올바른 평균적인 독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한 후,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결정은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에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 판결을 부정확하게  
전달한 기사 제목,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03

C 신문사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생협 측과 C 신문사 간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생협, 유사수신행위 해당」이라는 제목을 게재하여 마치 법원이 ○○생협의 차입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원은 소송대상기사의 명예훼손의 요건을 판단하였을 뿐, ○○생협의 자금모집 방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한편 C 신문사는 기사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긴 하나 본문에는 오해할 내용은 없으며, 이후 인터넷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은 수정했기에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해당 기사의 부정확한 제목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해 독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의 기사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지면이나 수정 전의 인터넷 기사만을 접한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C 신문사에 정정보도 게재를 권유하였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사의 제목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공감블로그 속 『언론-사람』 5월호 100자평

### 서신애 님

[세상읽기] 지면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어떤 일에 얽매이게 되면 깊이 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세상일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조하면 더 잘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관조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이강나 님

[언론중재법 NOW] 글과 같이, 불명확한 기사와 그 댓글로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례는 이제는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되었지요. 언론중재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정확하지 않은 기사들로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 임형하 님

[언중노트] '촬영을 거절할 권리, 공표를 거절할 권리'라는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방송사 제작진들에게 주제와 적합한 '그림'이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제작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언론-사람』 6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6월 20일(월)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 일반 연구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룬 기획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에 수록할 일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열정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응모자격**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원고마감** 2016년 8월 16일(화)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원고료(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2로 문의 바랍니다.